



**오늘의 성가**

입당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성체	497 498	우리를 위하여 예수여 기리리다
봉헌	219 340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봉헌	과견	77	주 천주의 권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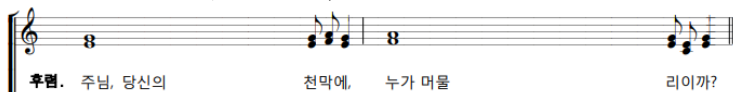
**말씀의 초대** ㉔ 주님께서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환대를 받으시고, 내년 이때에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드러났는데, 그 신비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보시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 ㄴ  
 그 무렵 주님께서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영긴 젓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만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14),2-3 ㄱ,3 ㄴㄷ-4 ㄱㄴ.5(◎ 1 ㄱ)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 독서**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㉔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li> <li>▪김광희(요셉)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조흥수, 서남애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이유찬(클레멘스)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윤창학(스테파노), 조남이(안젤라)의 영혼을 위하여 - 심윤조(이피제니아)</li> <li>▪이동현의 영혼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li> <li>▪조철현(사도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li> <li>▪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li> <li>▪최기쁨, 밝음, 누리 세 자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li> <li>▪배 미리암 모친 김맹열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에디슨 구역</li> <li>▪정영철(프란치스코)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서경호(대건안드레아)</li> <li>▪정영철(프란치스코), 정길례(프란체스카)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채 바오로, 테레사</li> <li>▪투병중인 이상완(바오로) 형제님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li> <li>▪이동현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li> <li>▪조철현(사도요한)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li> <li>▪조원봉(빈첸시오)의 건강을 위하여 - 요셉회</li> <li>▪임 안나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 임영자(안나)</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097	OLM 주일 헌금	\$ 2,939	미사 참례자 수	169 명
교무금 (\$3,380)	최영찬(5-6) 박재영(7-8) 하연승(5-6)	채희백(7-8) 황분숙(5-8) 최율리오(7)	오현주(7-8) 이용문(7) 임안나(3-4)	임광선(4-6) 이종실(1-6)	황태진(7-8) 오경선(7-8) 오용덕(7-8) 이창우(7)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b>Our Lady of Mercy</b>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공동체 소식**

**◆2차 헌금**

• 오늘(7/21)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분당 신부님 휴가 안내**

• 신부님 휴가 일정이 7/27(토) - 8/12(월)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48  
 • 구독 기간: 2019년 9월~ 2020년 8월  
 • 개편되는 주보에는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이 수록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야외미사**

• 분당 야외미사가 10월 6일(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분당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9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주보 광고주 모집**

• 9월부터 발행되는 새 주보에 게재될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판에 격주로 년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mazonSmile 실시**

• Amazon을 통해 구매하시는 상품가격의 0.5%를 Amazon에서 에디슨 한인성당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 smile.amazon.com으로 이용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amazonsmile/>

**◆7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7/27-7/28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평화의 모후께 바치는

목주기도 백만단 봉헌 달성 기념 미사

- 일시: 7 월 26 일(금) 오후 8 시
- 장소: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19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일정: 8:00 pm 미사  
9:00 pm 목주기도(영광의 신비)  
9:30 pm 리셉션(노틀담 학교 카페테리아)

◆ 뉴욕/뉴저지 제 4 차 선택 주말

- 날짜: 2019 년 8 월 31 일(토) 10AM - 9 월 2 일(월) 3PM
- 참가대상: 1981-1997 년생 청년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 Rt206, Newton, NJ 07860
- 참가 신청: [www.choicenynj.com](http://www.choicenynj.com) (7/1-7/31 선착순 50 명)
- 참가 문의: [choicenynj@gmail.com](mailto:choicenynj@gmail.com)
- 참가 신청비: \$250 (\$50 non-refundable deposit)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9 월 6 일 ~8 일
- 장소: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 240
- 문의: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 주년, 50 주년을 기념하여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10 월 27 일(주일) 오후 4 시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https://diometuchen.org/offices-and-ministries/family-and-pastoral-life/family-life/silver-and-gold/>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7 월 28 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사목회의

- 일시: 8 월 4 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노스브린스워 구역모임

- 일시: 7 월 28 일(주일) 오후 5 시 30 분
- 장소: 김삼식(베드로) 형제님 댁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10,38-42 (연중 제 16 주일)

1. 마르타가 보는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느껴지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루카 10,41)

2. 예수님은 불평을 하는 마르타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로 살피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마르타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2)

3. 내가 선택한 ‘좋은 몫’은 무엇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좋은 몫’이 가져다 준 기쁨이 있나요?

✕ 루카 11.1-13 (연중 제 17 주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루카 11,1)

1. 예수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루카 11,2)

2.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비결을 첫 마디에 담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있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청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 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